

# 전근대의 일한관계와 대외전쟁

## - ‘朝鮮의 役’의 제문제 -

오타 히데하루(太田秀春)

I. 시작하며	IV. 기술 전파의 문제
II. ‘朝鮮의 役’에 관한 교과서의 기술과 과제	V. 마치며
III. 일본군의 주민 정책	

### I. 시작하며

16세기말 (1592~1598)에 발발한 동아시아 지역의 일대 전쟁은 일본에서는 文祿·慶長の 役, 한국에서는 壬辰·丁酉倭亂, 북한에서는 壬辰祖國戰爭, 중국에서는 萬曆朝鮮役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 호칭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종래에는 각각의 입장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근래에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국제적인 견지에서 다시금 파악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전쟁에 관한 새로운 연구의 전개를 위해서는 근대 이후의 개념과 각각의 입장에서 탈각한 평평한 시선과 호칭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豊臣政權), 한국(朝鮮王朝), 중국(明)이 한반도를 무대로 전개한 전쟁(役)이라는 의미에서 이 전쟁을 ‘朝鮮의 役’이라고 부르고자 한다.<sup>1)</sup>

1) ‘役’에는 국경의 수비, 싸움, 병사, 노역 등의 字意가 있다(《大漢和辭典》 卷4). ‘조선의 역’에 대해서는 근대 동아시아 삼국전쟁이라는 국제적 시점에서 새롭게 파악하려는 시도 속에서 ‘壬辰戰爭’이라는 호칭도 제창되고 있다. 동아시아 삼국의 전통적 연대 표기법인 십간십이지를 사용하여 전쟁이 발발한 해가 ‘임진’이며 한반도가 주전장이었기 때문에 한국어의 발음으로 ‘壬辰’을 ‘임진’으로 부른다는 것이다(鄭杜熙·李環珣 編著, 2008 《壬辰戰爭-16世紀日·朝·中の國際戰爭-》(明石書店)). 참신한 제창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임진전쟁’이라는 호칭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이후 정착할지 여떨지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우선 ‘조선의 역’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의도하는 바는, 국제적 시점에서 새롭게 파악하겠다는 ‘임진전쟁’이라는 호

일반적으로 ‘조선의 역’의 개설적인 이해로는 ①당초 조총[鐵砲]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조선을 침공, ②명군(明軍)의 내습과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 민중의 저항(의병) 등으로 戰局이 전환, ③많은 일본군이 조선 측에 투항(降倭), ④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죽음을 계기로 일본군이 철퇴, ⑤전후 조선에서 일본으로 도자기 제조, 활자 인쇄 기술, 최신의 유교 등의 전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역’은, 그 성격 상 한일 관계사와 교류사를 생각할 때 극히 중요한 역사 사항이며 교과서에도 반드시 기술되어 있다.<sup>2)</sup> 또 제 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에서도 다루어져서 그 중 몇 가지 과제도 도출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교과서의 기술 내용과 제 1기 공동연구에서 나온 과제, 그리고 필자의 연구와 관련된 고찰을 행하고자 한다.

## Ⅱ. ‘朝鮮의 役’에 관한 교과서의 기술과 과제

### 1. 일본의 역사 교과서

여기서는 한일 양쪽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 특히 기술이 상세하게 이루어진 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를 들어 그 내용을 개관하겠다.

우선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다루는 일본사A와 통사를 중심으로 다루는 일본사B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본사B의 교과서로서 압도적인 비율을 점하고 있는 《詳説 日本史》를 대상으로 하겠다.<sup>3)</sup>

‘조선의 역’에 대해서는 <히데요시의 대외 정책과 조선 침략>에 기술되어 있다. 거기에서 전쟁의 요인에 대해서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 관계가 명의 쇠퇴로 인해 종래의 전통적인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었음을 배경으로 서술하고 ‘전국을 통일한 히데요시

청과 같다.

2) ‘조선의 역’을 총괄한 최근의 대표적 연구로는, 六反田豊 외, 2005 《文祿・慶長の役(壬辰倭亂)》(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 北島萬次, 1990 <豊臣政權の朝鮮侵略に關する學說史的研究>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校倉書房); 吳宗錄, 1999 <壬辰倭亂~丙子胡亂時期 軍事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軍史》 38을 들 수 있다. 또 ‘조선의 역’ 전반에 대한 근래의 연구 성과로는, 中野等, 2008 《文祿・慶長の役(戰爭の日本史16)》(吉川弘文館); 中野等, 2006 《秀吉の軍令と大陸侵略》(吉川弘文館)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도 ‘조선의 역’에 대한 전반적 기술은 이들 업적에 빚지고 있는 바 크다.

3) 2008 《詳説 日本史 改訂版》(山川出版社)

는, 이러한 정세 속에서 일본을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 뜻을 세우고' 조선에 入貢과 명으로 출병하기 위한 길잡이를 요구하였다고 쓰고 있다. 전쟁의 경위에 대해서는, 서전의 승리를 '조총의 위력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활약과 조선 의병의 저항, 명의 원군 등에 의해 점차 戰局은 불리해졌다.' 그 때문에 명과 강화 교섭을 하였지만 결렬되었고, 다시 출병하였지만 苦戰을 면할 수 없었고,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철병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文祿·慶長の 役 要圖'를 게재하여 두 전쟁의 전역과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경로를 그림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조선의 사람들을 전쟁의 와중에 휩쓸리게 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다. 또 국내적으로는 매우 많은 전비와 병력을 헛되이 써버리는 결과가 되어 히데요시 정권이 쇠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끝맺고 있다. 또 전후의 영향에 대해서는, <모모야마(桃山) 미술>에서 활자 인쇄술이 전해진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측 교과서를 보면, 종래의 《詳說 日本史》에서는 서전의 승리를 '신병기인 조총의 위력 등'이라고 조총에 대해 신병기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이후에 이 수식어가 사라졌다. 또 전국이 전환된 이유에 대해,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활약과 조선 의병의 저항, 명의 원군에 의해 일본군이 보급로를 차단당하여 점차 전국이 불리해졌다'라고 보급로가 차단당한 점을 들고 있지만, 최근의 교과서에는 이러한 기술이 보이지 않는다.<sup>4)</sup> 기술 내용도 후술할 한국의 교과서와 비교하면 평탄한 톤으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스타일이다.

## 2. 한국의 역사 교과서

이어서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 살펴보자.<sup>5)</sup> '조선의 역'에 대해서는 <임란과 호란>이라는 항목에 기술되어 있다. 우선 '조선의 역'의 발발에 대해서는, 그 요인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국내 정권의 안정을 위하여, 불평 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쏠리게 하고 아울러 자신의 정복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조선과 명에 침공하였다고 한다.

소항목 <임진왜란의 발발>에서는, 전투의 경위에 대하여 부산진과 동래성에서 정발

4) 2001 《詳說 日本史》(山川出版社)

5) 1999 《고등학교 국사(상)》(교육부)

과 송상현의 분진, 충주에서 신립의 방어, 서울·평양의 함락, 함경도로 일본군의 침입 등 시간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 이어서 <수군의 승리>에서는, 육지에서는 조선군이 불리하였던 것에 비해 해상에서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활약하였음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주요한 해전과 수군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임진왜란 해전도’도 게재되어 있다. 그 중 수군에 대해서는, ‘그(이순신 : 인용자 주)는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자 80여 척의 배를 거느리고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 이어, 사천, 당포, 당항포 등지에서도 대승하였다. 마침내 한산도 대첩으로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곡창 지대인 전라도 지방을 지키게 되어 왜군의 수륙 병진 작전을 좌절시켰다’고 그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의병의 항전>에서는, 구체적인 의병장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의병 활동이 수군과 함께 戰局의 전환에 기여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관군과 의병의 활동’이라는 그림을 게재하여 일본군의 침입로와 조선·명군의 진격로, 격전지, 의병의 활동지 등을 보여 주어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왜란의 극복>에서는,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전국이 역전되어 강화 교섭에 들어간 것, 교섭 결렬 후 다시 일본군이 침입했으나 조선·명 연합군이 북상을 막고 해상에서는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대승리를 거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이어서 참패로 인해 전의를 상실한 일본군은 패주하기 시작하였고 조선 수군은 도망하는 일본군 수백 척을 노량해전에서 가로막고 최후의 일격을 가하였다고 하며, 이순신은 이 최후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다고 끝맺고 있다.

마지막으로 <왜란의 영향>에서는, 조선 측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을 ‘우리 민족이 지닌 잠재적 역량이 우월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구체 사례로 관군의 국방 능력은 일본에 뒤졌으나 ‘전 국민적인 차원의 국방 능력은 일본을 능가하였다’고 하고 ‘우리 민족은 신분의 귀천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문화적인 우월감에 가득 차 있어서 자발적인 전투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력이 국방 능력으로 작용하여 왜군을 격퇴시킬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쓰고 있다. 또 국내의 피해 상황에 아시아의 형세의 변화로서 북방의 여진족의 대두, 일본에 대해 ‘동아시아의 문화적 후진국이던 일본은, 조선에서 활자, 서적, 그림, 도자기 등의 문화재를 약탈하고, 많은 기술자와 학자 등을 납치해 갔다. 이와 함께 조선의 성리학도 전해져서 일본의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일본 측의 ‘문화 약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이전의 교과서가 전쟁의 요인·경위·결과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던 것에 비하자면 조금 간략화된 것이다. 종래의 교과서에서는 특히 초기의 패인

으로 일본군이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던 것과,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과 의병의 활동, 전쟁의 승리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다.<sup>6)</sup>

예를 들면, ‘전쟁이 진전됨에 따라 각 지방의 자연 조건에 알맞은 무기와 전술을 융통성 있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익혔으며, 대포와 함선 제조 기술은 단연 일본을 능가하였다. 왜란에서의 승리는 몽고와의 항쟁 이후 가장 커다란 국난의 극복으로서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고 민족 문화를 보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는 기술이 삭제되어 있다. 자국이 전장이 되어 많은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 일본의 교과서 보다 기술이 상세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전의 교과서가 좀 더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보이는 데 비해 그 후에는 그러한 서술 지점이 삭제되어 있어서, 종래의 것과 비교한다면 기술 내용으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톤을 억누르는 비교적 냉정한 기술이 되었다.

### 3.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의 과제

이처럼 한일의 역사 교과서에 상세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기술되어 있는 ‘조선의 역’에 관해서는 이미 제 1기 한일 역사 공동 연구에서도 채택되어서 연구사 등에 대한 상세한 정리·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가지 과제도 제기되어 있다.<sup>7)</sup> 이들 과제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음의 네 가지 점이다.

즉 ①왜성(일본 측의 군사 거점, 조선에 쌓은 일본식 성곽) ②‘被虜人’의 실태(‘被虜人’과 투항 조선인, 귀순 조선인) ③병량 공급 시스템(전쟁 수행 상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가결) ④전쟁에 의한 조선 사회의 변화(구체적인 변화의 양상) 등이다.

①의 왜성에 대해서는 근래 연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성의 역사와 ‘나와바리(繩張<sup>7)</sup>): 축성 용어로 부지 경계선,濠, 건조물 등의 예정 위치를 현지에 줄을 쳐서 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구조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sup>8)</sup> ②의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동한 조선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포로의 의미가 강조된 ‘被虜人’에 관해서 많은 연구 성과가 있다.

6) 1986 《고등학교 국사(상)》(문교부)

7) 朴哲暎, 2005 <壬辰倭亂(文祿·慶長の役)研究の現況と課題> 《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 六反田豊他 <文祿慶長の役> 《같은 책》

8) 왜성에 대한 연구 상황의 정리는 太田秀春, 2005 《朝鮮の役と日朝城郭史の研究－異文化の遭遇・受容・變容－》(清文堂出版) 참조.

그러나 이들 연구는 ‘피로인’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일본으로 이동한 조선인의 한 면만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되며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이동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 1기에서 이후의 과제로 제기된 ‘투항 조선인’과 ‘귀순 조선인’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sup>9)</sup> 일본에서 조선으로의 인적 이동인 ‘降倭’에 대해서는 근래 다양한 시점에서의 연구가 제창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sup>10)</sup>

이 글에서는 이들 과제에 대한 교과서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찰하겠다. 특히 ②와 ③에 대해서는 일본군이 조선에서 행한 對住民 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또 ①과 ④에 대해서는 전후 조선의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다.

### Ⅲ. 일본군의 주민 정책

이 ‘조선의 역’이라고 하는 군사 행동에 관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인식은 ‘중국 들어가기[唐入り]’, 즉 명에 대한 침공이었다. 결국 조선을 점령한 다음에는 명을 침공할 준비가 필요하였으며 조선에 대한 군사 침공에서 점령 그리고 통치에 이르는 흐름을 따라간 것이 된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은 처음으로 異國에서 이문화를 접촉하게 되어 국내와는 다른 사회 구조 속에서 주민을 통치하게 되었다.<sup>11)</sup>

#### 1. 일본 국내에서의 정책 ‘還住’

‘조선의 역’ 당시 일본군은 명 공략을 위한 발판으로서 조선의 점령을 목표로 하고

9) 鶴園裕 외, 1991 《日本近世初期における渡來朝鮮人の研究－加賀藩を中心に－》(科學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에서는, ‘조선의 역’에 따른 조선인의 일본으로의 인적 이동에 대해서 다양한 도래 형태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10) 항왜의 다양한 존재 형태에 대해서는, 鄭潔西, 2008 <萬曆朝鮮役により明軍に編入された日本兵> 《東アジア文化環流》 1 (2) ; 北島萬次, 2005 <壬辰倭亂と民衆－降倭についてのひとつの視点－>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3 ; 北島萬次, 2004 <壬辰倭亂における降倭の存在形態－その素描－> 《歴史評論》 651 등의 연구 성과가 있다.

11) 이하의 기술은 지면 관계 상 그리고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하나씩 주를 달지 않았는데 전면적으로 太田秀春, 2005 《朝鮮の役と日朝城郭史の研究－異文化の遭遇・受容・變容－》(清文堂出版)을 참조하였다. 따라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근거가 되는 사료를 주로 제시하였지만 기타 논술의 근거와 선행 연구의 정리는 앞의 책에 의한 것임을 미리 알려 둔다.

있었고 점령 통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규슈(九州)의 일은 고기나이(五畿内)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일은 규슈와 마찬가지로’라는 인식 하에 조선에 출병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점령 정책을 고찰하기 위해서 우선 국내에서의 점령정책을 훑어보겠다.

도요토미 정권이 國內統一戰에서 실시하였던 주민 통치정책은 일반적으로 ‘還住’라고 불리고 있다. 이는 전장과 인접지에서 전투가 한창일 때 피난하였던 주민을 전쟁 종결 후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오게 하여 생업에 복귀시키는 정책이다.

이 還住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禁制’이다(그림 1). ‘禁制’는 교부하는 세력이 자기 군대가 주민에 대해 폭력과 행패를 부리는 것을 금지한 문서이다. 이를 손에 넣음으로써 주민들은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와 생업에 복귀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전장에서의 還住의 수순으로는, 어떤 지역에 군대가 침공하면 ①주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공격해 들어온 세력에 대하여 금전·미곡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禁制’를 요구하고 ②‘禁制’를 얻은 주민이 원래의 거주지로 복귀(還住)하며 ③공격해 들어온 세력은 還住한 주민을 보호하고 조세의 징수 등 점령지 통치를 행한다고 하는 흐름에서 還住가 이루어졌다.



禁制 高麗國  
 一 軍勢甲乙人等, 濫暴狼藉の事  
 一 放火事, 付, 人取事  
 一 對地下人, 並百姓, 臨時之課役其他非分之儀, 申懸事  
 一 右條々堅令停止之訖, 若違犯之輩於在之者, 忽可被處嚴科者也  
 天正二十年卯月二十六日 秀吉朱印

〈그림 1〉 禁制 (《島津義弘》始良町歴史民俗資料館)

히데요시가 조선으로 渡海한 다이묘(大名)들에게 준 ‘禁制’의 문구는 국내 통일전쟁 시기의 것과 거의 동일하여 히데요시의 대외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금제’를 매개로 한 還住는 조선에서는 기능하지 못하여 새롭게 ‘榜文’과 ‘札’에 의한 還住가 고안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소촌(惣村)과 같은 형태로 마을(村)의 자치가 일정 정도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도요토미 정권은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 국내를 통일한 것이다.

## 2. 조선에서의 還住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을 받아 조선에 침공한 일본군은 조선에서도 같은 형태의 還住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며, 히데요시 자신도 바다를 건너 여러 다이묘(大命)에게 國內統一戰과 거의 같은 내용의 ‘禁制’를 주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사회 시스템이 일본과 다른 조선에서는 이러한 수법이 기능하지 못하였던 듯하다. 일본군은 국내에서 실시하였던 ‘禁制’를 매개로 한 정책에 더하여 무언가를 생각해 낼 필요에 부딪혔다.

그래서 일본군은 ‘榜文’과 ‘札(帖)’에 의한 새로운 還住 정책을 내세웠다. 그것은 ‘榜文’을 게시하여 일본군에 의한 폭력·행패를 금지하여 還住하도록 하겠다는 일본군의 의사를 주민에게 제시하고, 나아가 주민에게 ‘札’을 배포하여 ‘札’을 소지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일본군이 게시한 ‘榜文’의 주요 내용은 ①원래 거주지로 還住할 것 ②상급 관리와 그 일족을 포박·살해할 것 ③도망친 관리가 숨은 집을 밀고할 것 ④還住하지 않은 주민은 처벌할 것 ⑤일본군의 폭력·행패는 서면으로 보고할 것 등이었다.

또 ‘札’에 대해서는 일본측 사료에 ‘札’, ‘手札’, 조선 측 사료에 ‘免死帖’, ‘賊帖’, ‘倭帖文’, ‘牌’ 등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휴대 가능한 형식의 것이었다. 이 ‘札’의 배포에는 在地 조선인 관리도 개재하였던 사례가 확인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시마즈씨(島津氏)가 배포한 ‘札’은 노송나무로 제작된 것으로 길이 5~6촌에, 앞면에 ‘島津之人’, ‘島津猿み’ 등으로 적고,<sup>12)</sup> 뒷면에 날짜를 기록한 것이었다. 이 정책에 의해 일본군의 점령지에서 주민이 환주하여 생업에 복귀하는 현상이 보이게 된다. 이것이 제 1기 위원회에서 과제로 남겨 둔 ‘투항 조선인’, ‘귀순 조선인’이며 조선 측이 ‘附逆’, ‘附倭’, ‘順倭’ 등으로 간주한 주민들이다. 일본군에서 조선 측으로 이동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항왜’라는 호칭이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피로인’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 일본 또는 일본 측으로의 조선인의 인적 이동에 대한 호칭은 일반적인 것이 없다. 이 글에서는 우

12) ‘札’에 적혀 있었다고 하는 ‘島津猿み’의 ‘猿み’는 한국어에서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サラム)으로 ‘島津猿み’는 다른 자료에 보이는 ‘島津之人’과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측이 ‘附倭’, ‘順倭’, ‘附逆’ 등으로 부른 것과 전적으로 같은 뜻이다.

선 당시의 사료에 많이 나타나는 ‘附倭’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술하는 것으로 한다.

### 3. 還住의 실태

전형적 사례로 조선의 수도인 한성(서울)을 점령했을 때의 움직임을 살펴보겠다(그림 2). 1592년 5월 한성을 점령한 일본군은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단 성 밖으로 진을 옮기고 ‘榜文’을 사대문 밖에 내보여 주민에게 還住를 촉구하였다.<sup>13)</sup> 히데요시 자신도 한성을 점령한 후에는 주민을 還住시킬 것을 지시하였다.<sup>14)</sup>

그 결과 점령 1년 후인 1593년 4월 일본군이 한성을 철퇴할 때에는 일본군을 상회하는 수의 조선인이 한성에 還住해 있어서 일본군과 주민이 교역하는 상황이 나타났다.<sup>15)</sup> 원군으로 온 명의 提督 李如松은 한성의 일본군은 8~9천 명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1만여 명은 일본군에 투항한 조선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조선인들은 한성의 성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니, 李如松은 한성의 성내 북부에 조선인이 거주하고 남부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sup>16)</sup> 따라서 한성의 지배는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비교적 순조롭게 행해져서 히데요시가 지시한 주민의 還住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었다고 보아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sup>17)</sup> 이러한 현상은 한성만이 아니라 고바야

13) 한성에서 발령된 ‘榜文’의 내용은 확실하지 않지만 경상도 仁同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令, 大字, 散民速還于本宅, 而男耕稼苗, 女採桑畜蠶, 士農工商各修家業, 若吾軍士有犯法以妨汝之業者必罰矣’ 라는 내용의 ‘榜文’이 나왔으며 한성에서도 대략 같은 내용의 것이 게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天刑, 《西征日記》 卷一[1906 《續續群書類從(第三史傳部)》 (國書刊行會)]

14) <加藤文書>[1966 《熊本縣史料(中世篇 第五)》 (熊本縣)]

一. 都并國中政道方之儀, 小西(行長)相談, 下々猥無之様ニ堅可申付候, 然者先へ越候人數事, 何も都之外廻ニ野陣を可仕候, 上様御馬廻其外御番衆計ニて, 都之内ニ可有御座候條, 得其意, 町人を悉還住可申付事

一. 百姓町人以下還住させ, 法度之儀能々可申付旨, 被仰付, 最前御上使被差遣候へとも, 國々ひろく候て, たらす候ハ、, 其方小西相談, 慥成者可差遣候事

15) 李肯翊, 《燃藜室記述》 卷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大駕西狩(五月初三日條). “時京城之人, 皆奔避未久, 稍稍還入, 坊里市肆依旧, 與賊相雜販賣, 賊守城門, 令我人帶賊帖者, 不禁出入, 於是民盡受賊帖, 服役於賊, 毋敢違拒, 亦有媚賊相嘔, 嚮導作惡者, 如有謀議殺賊者, 輒爲其民所告, 燒殺於鐘樓前及崇禮門外, 極其酷慘以示威, 髑髏積其下”

16) 《宣祖實錄》 卷35, 26年 2月 辛丑(16日)條. “提督曰, 似當還駐平壤, 京城之賊, 不過八九千, 而其餘萬餘, 皆是爾國之投倭者. (중략) 且聞倭賊據京城南邊, 爾國人在北邊”

17) 다만, 당연하지만 일본군에 대한 저항도 존재하였는데 그 경우에는 ‘燒殺於鐘樓前及崇禮門外’라고 하듯이 일종의 본때를 보여주는 행위도 행해지고 있었다. 앞의 주 15 참조.

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가 주도하고 있던[在番] 개성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그림 3). 개성에서도 일시 피난해 있던 주민들이 還住하여 마을에는 물자가 넘치는 상태가 되었다.



<그림 2> 일본군 주도 시의 한성



<그림 3> 조선 후기의 개성

둘 다 도시를 성벽으로 에워싼 조선의 전형적인 성곽 스타일이다. 한성에서는 남쪽에 일본군이 주도하였고 북쪽에는 조선인이 거주하였다. 또 개성에서도 성내에 많은 조선인이 還住하여 번창함을 보여 주고 있었다.

(<그림 2>는 《秀吉と文祿・慶長の役》(名護屋城博物館) <그림 3>은 《조선후기지방지도》(규장각)

이들 주민은 당연히 일본 측의 還住에 응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보호를 받게 되어 還住한 주민의 집에 일본군이 진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sup>18)</sup> 이러한 보호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들도 還住에 응한 것이다.

주민이 일본군의 호소에 응하여 還住하는 현상은 전쟁의 전 기간에 걸쳐 보이지만, 특히 강화 교섭 기간을 포함하여 일본군이 7년간 계속하여 점령한 남해안에서 현저하였

18) 구체적인 사례로 미야베씨(宮部氏)가 주도하고 있던 경상도 선산에서는 이동하여 온 일본군이 조선인의 주거에 잠자리를 두려고 하자 ‘범도’라며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田尻鑑種, 《高麗日記》 文祿2年2月14日條.

せしやうはう(宮部善淨坊)の城ふもとへ唐人居候處二宿陣候、然處、城衆參候而唐人の家ニはちん(陣)法度と御座候間、はやく罷出候へと申され、皆々迷惑仕候處ニ、又々立入わひ(詫)言申請、其儘陣候(北島萬次, 1982 《朝鮮日記・高麗日記 - 秀吉の朝鮮侵略とその歴史的告發 - 》 そして)

다. 1593년 이후 강화 교섭에 따라 부산 주변의 남해안으로 철퇴한 일본군은 倭城이라고 불리는 일본식 성곽을 쌓아 거점으로 삼고 점령을 지속하였다. 그리고 이들 왜성을 비롯한 일본군의 거점 주위에는 일본군과 함께 조선인이 거주하는 상황이 출현하였다. 부산 등 왜성의 주변에는 수백 호의 조선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시장에서 일본군과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sup>19)</sup> 조선 측에서도, 일본군의 주둔이 장기간에 이르자 주민이 일본군의 거점 주변으로 遷住하여 조세를 납부하고 노역을 제공하고 또 일본군과 교역하거나 일본의 습속을 모방하여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이를 물들이는 광경도 보이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20)</sup> 앞서 본 과제 중에 병량 공급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의 한 단서를 보여 주는 것이 遷住한 주민들의 조세였다고 생각된다.

도요토미 정권은 국내 통일 전쟁에서 병참선을 확보하여 병량을 前線에 대량 집적하여 여러 다이묘에게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전투 지역까지의 수송은 각 다이묘의 자기 부담이었다. 육상 수송 능력은 결코 높다고는 할 수 없어서 현지에서의 병량 조달이 중요 과제였다.<sup>21)</sup> 실제로 왜성 주변에서는 조세의 징수가 행해지고 있어서, ‘조선의 역’ 초기 단계의 일본군은 병량에 고생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왜성을 쌓아 거점이 만들어지는 1593년 이후는 그러한 경우가 없어져 갔다. 물론 일본 국내에서 해로로 직접 병량을 왜성으로 수송할 수 있었다는 점도 있을 테지만 현지에서 遷住에 동반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후 주목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遷住한 주민 중에는 일본군에 가담하는 이까지도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앞서 본 개성의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물자를 조선인에게 수송시키기도 하였는데 그들은 도중에 조선인의 습격을 받은 경우에도 도망가지 않고 개성으로 돌아와 습격의 양상을 다카카게에게 보고하였다.<sup>22)</sup> 또 춘천에 주둔하고 있던[在番] 시마즈 요시히로(島

19) 《宣祖實錄》卷69, 28年 11月 庚午(2日)條. “釜山探審, 則留賊盡爲渡海, 行長移陣于此, 率下將六人, 各領數千, 或率砲, 劍手千餘, 船數則六百八十餘隻矣. 又有天使迎接倭正成者, 東邊入接, 稱病不出, 天使到釜山, 幾至十日, 而不爲見謁云. 所築新城, 周回六七里, 又設市場, 倭賊男女及我國人民, 日日物貨交易矣. 自東平至凡川, 我國人居接者, 多至三百餘戶”

20) 《宣祖實錄》卷61, 28年 3月 甲戌(1日)條. “二月二十日成貼, 都元帥權慄狀啓 (중략) 今賊久居邊境, 歲月既多, 而殺戮稍戢, 又佯爲煦濡之狀, 不相侵暴, 資以飲食, 則愚民之失其常性, 困於飢餓者, 已紛然相率而歸之, 不可禁抑. 爲之耕田納租, 以供其役而不恥, 日往月來, 幾與之化而相忘焉. 傳聞東萊, 釜山, 金海等處, 耕犁滿野, 三分之二, 皆爲我國之民, 而往往有剃髮·染齒, 以從其俗者. 又有遠處買賣之人, 各持其物往來, 互市於賊陣, (중략) 至令蔚山老人, 往受約束於賊酋. 觀喜八通書, 則種子農食, 并欲隨盡借之. 彼以海途千里輸運之糧, 無故而欲貸我民者, 是實愛我耶? 救我耶? 其情不難知也”

21) 久保田正志, 2008 《日本の軍事革命》(錦正社)

津義弘)의 군대에서는 시마즈군에 가담하고 있던 조선인이 공격해 온 조선군에 화살을 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sup>23)</sup> 조선에서는 일본군에서 조선으로 투항한 병사를 ‘항왜’라고 부르며 조선군에 편입시켜 일본군에 대한 공격과 정보 탐색에 활용하였다.<sup>24)</sup> 이들 ‘부왜’ 조선인들의 행동은 ‘항왜’의 그것과 전적으로 같은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군의 지배 지역에서는 많은 조선인 주민이 遷住하여 조세를 납부하거나 교역을 행하고 일본의 언어를 이해하거나 습속을 모방하는 이까지도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 측에 붙은 주민들이 상당 수 존재한 것은, 조선 측이 이들 주민의 귀환을 허락하지 않았고 돌아온 경우에는 처형하는 등의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5)</sup>

이러한 ‘부왜’에 대한 조선측의 인식은 전후 처리의 태도에도 드러난다. ‘조선의 역’ 종결 이후 조선은 일본에 연행된 조선인의 쇠환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국민이 일본에 잔류해 있는 사태가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라는 점이 컸다. 따라서 귀환을 권유하는 조선 조정의 ‘諭文’에서는 귀국 후의 免役·免賤·復戶 등의 특전이 이야기되었지만, 이것이 실행된 것은 적어서 본국으로 귀국한 포로에 대한 대우는 극히 냉담하였다.<sup>26)</sup> 조선측이 출선하여 ‘免死帖’을 발급하지 않은 배경에는 이러한 조선 조정의 ‘부왜’ 조선인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조선인의 일본군에 대한 ‘부왜’는 일반 주민만이 아니라 지배 계급인 재지 양반층에게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sup>27)</sup> 명·조선 측으로서도 무언가 대응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선 1593년 2월 명군의 經略 宋應昌의 주도로 일본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부왜’한 조선인에 대해서는 일본군에게서 도망 오면 관대하게 처분한다는

22) 下瀬頼直, 《朝鮮渡海日記》 文祿元年(1592) 12月 18日條. “十八日, 同所(坡州)に御滞留, 又開城府に殘し被置候荷物は, (小早川)隆景様より唐人に御持せ被送遣之候, 彼唐人開城府へもとり候所に, 山より人下合候て五人打申候とて唐人壹人又戻り候て申候間, (毛利)元康様(吉見)元頼様其外御人數殘なく追懸け候て御越し候へ共, 日暮而山唐人行方しれす候”

23) 《宣祖實錄》卷 56, 27年 10月 壬子(8日). “守門將咸崇德, 當賊屯春川之日, 以本土之人, 投入賊中, 與賊同心, 至於官軍接戰之日, 亂射我軍, 使之退兵”

24) 최근의 연구로는 제장명, 2007 <임진왜란 시기 降倭의 留置와 활용> 《역사와 세계》 32를 꼽을 수 있다.

25) 이러한 조선 측의 태도에 대해서 명군의 經理 楊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宣祖實錄》卷93, 30年 10月 己卯(22日)條. “且被擄人, 爾國不饒而殺死, 故不肯出來, 今宜雜以鄉談, 作招諭文字, 約諸矢射于賊陣, 則彼必動念出來. 此文, 亦趁明日書呈云矣”

26) 米谷均, 1999 <近世日朝關係における戰爭捕虜の送還> 《歴史評論》 595

27) 崔永禧, 1957 <壬辰丁酉亂時 沿海民의 動態> 《史叢》 2. 최근의 연구로는 박재광, 2001 <임진왜란기 일본군의 점령정책과 영향> 《軍史》 44

‘榜文’을 각지에 게시하였다.<sup>28)</sup> 또 같은 해 9월에도 비변사가 부산 등지에서 일본군에 ‘부왜’하는 조선인에 대해 ‘榜文’을 게시하여 일본군의 진영에서 도망하여 조선 측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였다.<sup>29)</sup> 이 방문들 중에는 사형을 면하여 주는 것만이 아니라 역을 종신 면제하거나 賞職을 수여하는 등의 특전까지도 강조되어 있다.<sup>30)</sup> 그리고 국왕 선조는 ‘榜文’을 한문으로 게시하는 경우는 지식 계급밖에 이해하지 못하므로 한문 보다 평이한 吏讀와 諺書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sup>31)</sup> 이를 통해 일본군에 ‘부왜’한 조선인이 어떠한 사회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명군은 ‘免死帖’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sup>32)</sup> 일본군의 진영에 있는 조선인에 대해 일본군을 향도한 자 이외에는 ‘免死帖’을 주어서 죽음을 면하게 하고 조선 측으로 돌아오도록 호소한다는 것이다.<sup>33)</sup> ‘免死帖’을 발급할 필요성에 대해서 명의 장수인 山東布政使司 梁祖齡은, 조선 남부에 주둔하고 있던 명군의 보고를 바탕으로 일본군에 ‘부왜’하다가 다시 조선 측에 돌아온 주민이 공연한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sup>34)</sup> 일단 일본군에 붙은 조선인들은 설령 ‘조국’이라고 하더라도 무언가 보장이 없는 간단히 돌아 올 수는 없었던 것이다. 명군에 의한 ‘免死帖’의 배포 등으로 인해 일본 측에 붙은 조선인 중에는 조선으로 복귀하는 이도 나타났다.<sup>35)</sup> 거기에는 일본과 조선

28) 《宣祖實錄》 卷35, 26年 2月 乙卯(29日)條

29) 《宣祖實錄》 卷42, 26年 9月 庚申(9日)條. “備忘記曰, 釜山等處, 我國人民, 多數投入其中, 豈無欲還而疑阻者, 別作榜文, 明示告諭, 如果出來, 非徒免死, 當終身免役, 或許賞職等事, 參酌議處事, 言于備邊司”

30) 《瑣尾錄》 第2, 雜錄 曉諭諸道軍民書[1971 《瑣尾錄(한국국사료총서 14)》 (국사편찬위원회)] “一 斬倭大將者 勿論尊卑 陸嘉善 一 凡斬倭一級以上者 皆錄爲功臣 一 雖投入賊中者 若斬倭賊出來 則非特免其罪 而並錄其功 一 雖不能斬倭 先爲出城逃來 則免罪褒賞 萬曆二十年(1592) 九月 日”

31) 《宣祖實錄》 卷29, 25年 8月 戊子(1日)條. “上教曰, 黃海道教書, 已爲製進矣, 士人則自能解見, 其餘人則恐不能知之. 此教書則士人處曉諭. 又入吏讀, 去其支辭, 多作朝廷榜文, 又令義兵將或監司等, 飜以諺書, 使村民皆得以知之事議啓”

32) 《宣祖實錄》 卷44, 26年 11月 己未(9日)條. “其帖(宣諭帖)略曰, … 我卽留兵, 終歸無益, 特請天語嚴勅, 移文宋經略, 轉行都司, 前往王京, 回諭國王及陪臣, 宣布朝廷恩德, 被奪之民, 盡給免死帖, 勿得妄行殺戮. 如該國(朝鮮)君臣, 仍前昏迷, 有違明旨, 誠爲自棄其國(朝鮮), 有辜再造之恩. 竊謂威福, 出自朝廷, 予奪仰從宸斷, 議行處置, 以安國人, 以保藩服, 亦定難扶傾之要機也”

33) 《宣祖實錄》 卷34, 26年 1月 戊寅(23日)條. “上幸新安館, 接見天將黃應暘, 吳宗道, 俞俊彥. 應暘曰, 俺調兵南方, 故不得與大軍偕來. 而暹羅國, 已發十萬兵, 徃征日本矣. 提督(李如松)遼東人, 不辦皂白, 只喜殺戮, 故俺齎免死帖萬餘道, 專爲活民而來. 愚氓雖或畏死附賊, 而如非嚮道者, 則俺皆給帖安接, 許還其本業. 如有間路, 則幸指示之, 使得繞出大軍之前”

34) 《宣祖實錄》 卷102, 31年 7月 乙巳(22日)條. “且免死帖, 多印下送. 雖有歸正之人, 不無疑畏之心, 使歸正之人, 聞風而來爲當”

35) 《宣祖實錄》 卷145, 35年 1月 乙巳(12日)條. “慶尙等道體察使李德馨啓曰, 南海一縣, 本以海中孤

사이에 농락당하는 주민의 모습이 있었다.

주민들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결단을 내리도록 내몰렸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의 선택지에는 일본 측과 조선 측 사이에 절대적 구분은 없었고 때와 장소에 따라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곳에 붙어 생존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에 대하여, 일본군과 명·조선군 사이에서는 각각 ‘札’과 ‘免死帖’을 사용해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참으로 주민 ‘쟁탈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이 전쟁으로 인해 주민들이 처하게 된 상황을 여실히 말하여주고 있다.

## IV. 기술 전파의 문제

### 1. 종래의 이해

교과서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조선의 역’으로 인해 조선에서 도자기와 활자 인쇄 기술 등이 일본에 전해진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한편 ‘降倭’를 통해 일본에서 조선으로 조총의 기술이 전해졌다. ‘조선의 역’의 경우는 국가와 집단의 생존권이 걸린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이 일본군이 소유하고 있던 조총의 성능에 착목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흐름이며, 그 후 조선에 도입된 것은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에게서라도 우수한 기술을 받아들이겠다는 극히 냉정한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 2. 조선의 일본 성곽 인식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총과 마찬가지로 조선이 주목한 일본의 군사 기술로는 축성 기술이 있었다. 전쟁 당초 일본군은 조선의 기존 성곽을 개수하여 이용하였지만 이들 성은

---

島, 猝被賊鋒來逼本縣, 人民飛走路窮, 淪陷於賊. 其間, 雖或有罪惡特甚者, 而此則統制使, 已爲查出行刑, 其餘則統論事勢, 與陸地有異, 情或可恕矣. 且戊戌(1598년)之冬, 臣跟隨天將, 在順天, 以計招出南海附賊之民, 潛引本處走回人, 厚加賞餽, 給與一行, 齎去御印免死帖, 誘引其處之人. 於是, 本縣出身金得酉等, 夜率居民, 相繼出來, 其數過八百餘名. 天將聞之, 深以爲喜, 使重賞此輩之功, 而臣亦將其曲折狀啓矣”

명·조선군의 공격으로 함락된 것도 있어서 일본군이 사용하기 쉬운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를 반성하여 한성에서 철퇴한 일본군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해 연안에 일본식의 축성 기술로 성곽을 쌓았다. 이것이 ‘倭城’이라고 불리는 성곽이다. 왜성은 ‘조선의 역’ 후반에 명·조선군의 맹공을 받아 울산왜성 등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그림 4). 그러나 명·조선군의 공격으로 함락된 왜성은 한 군데도 없어서, 조선 측은 성벽으로 몇 겹씩 에워싸인 일본식 성곽의 높은 방어력에 경탄하였다.



〈그림 4〉 울산왜성의 공방전(《戰國合戰圖屏風の世界》 和歌山縣立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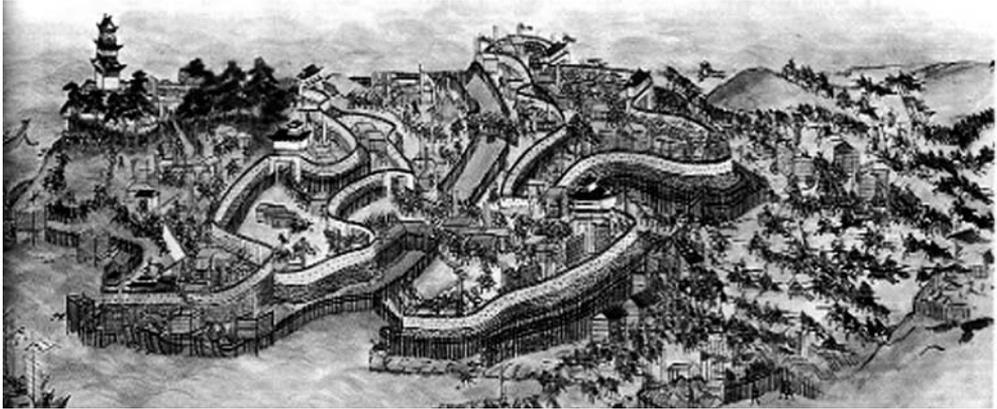
명·조선군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농성하는 울산왜성에 맹공을 가하였지만 결국 함락시키지 못한 채 일본군 원군이 내습하자 포위를 풀고 철퇴하였다. 왜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사실은 조선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조선 측은 일본 성곽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왜성을 공격한 조선군은, 조선의 성곽은 하나의 성벽으로 에워싼 單郭 형식의 것이 많은 데 비해 일본의 성곽은 성벽을 몇 겹으로 둘러 친 複郭 구조가 특징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外城을 깨트려도 內城이 있어서 방어선이 여러 겹으로 구축되어 있어 아주 공략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sup>36)</sup>(그림 5). 또 건물이 성벽 위에서 걸친 것처럼 성 밖으로 튀어 나와 있어서 농성하는 일본군은 공성하는 조선군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비처럼

36) 《宣祖實錄》卷 109, 32年 2月 壬子(2日)條. “城築五周, 雖陷外城, 內城又有, 決難陷矣”

《宣祖實錄》卷 39, 26年 6月 壬子(29日)條. “併集王城中築城, 寨中置寨, 柵中立柵, 其防範周密”

총탄을 쏘기 때문에, 조선군은 그 아래에서 성 안의 형세를 살필 수가 없고 또 총탄 아래로 접근할 수가 없다고, 일본 성곽의 성루에 보이는 ‘이시오토시(石落: 성벽 위에 마루처럼 밖으로 튀어 나오게 설치한 부분으로 돌이나 뜨거운 물을 떨어뜨리는 장소)’와 같은 기능을 상세하게 관찰하고 있었다.<sup>37)</sup>



〈그림 5〉 《征倭紀功圖卷》에 묘사된 순천왜성(모사, 《倭城の研究》 4)

이 그림은 명군의 종군 화가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 ‘雖陷外城, 內城又有城’이라고 평하였듯이 벽과 해자로 여러 겹으로 방어선이 설치된 일본 성의 특징이 잘 그려져 있다.

또 조선 측이 관심을 보인 것은 일본 성곽의 성벽(돌담) 구축 기술이었다(그림 6). 조선에서는 고대부터 석축 성벽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쌓는 방법은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쌓아 올리는 구조였다. 따라서 완만한 경사로 쌓아 올린 일본 성곽의 돌담은 아주 기이하게 비취졌을 것이어서 많은 관찰 기록이 있다.<sup>38)</sup> 조선 측에서는, 이들 성벽은 운반 곤란할 정도의 대형 석재로 쌓으며, 공성 측의 파괴 공작을 견딜 수 있도록 강고하게 기초 부분을 넓은 폭으로 쌓고 상부로 쌓아 올려 가면서 경사를 세우는 것은, 성벽 아래쪽에

37) 《宣祖實錄》 卷96, 31年 正月 乙丑(3日)條. “二十三兩日交戰之後, 卽進兵道山城下. 城凡四重, 外城周遭於山下, 土築低微, 我兵得以改開. 其內三城, 石築堅固, 城上列置房屋, 其屋跨出城外, 彼得以俯瞰制我, 放丸如雨, 我從其下, 既不能察見城中形勢, 又不得近於銃丸之下, 我兵不得已屯於丸所不到之處”

38) 《宣祖實錄》 卷109, 32年 2月 壬子(2日)條. “上曰, 賊寨甚險云, 何以築之, 李光庭曰, 城石極重, 難可運之, 且城基則甚廣, 而上端則漸銳, 城門回曲, 難得馳入. 石城高二丈, 石城之上, 又築土壁一丈矣. 上曰, 賊城難拔云, 何以言也, 李光庭曰, 城既堅固, 鐵丸如雨, 是以難拔矣. 釜山, 西生浦皆然” 姜沆, 앞의 책 <賊中封疏>

불은 공성군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공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였다. 조선 측에서는 강도와 방어력 면에서 일본식 성벽이 군사적으로 유효한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 6〉 조선의 기존 성벽(왼쪽, 해미읍성)과 왜성의 성벽(오른쪽, 서생포왜성)

조선의 성벽이 수직으로 쌓여 있는데 비해 일본식 기술로 축성된 왜성의 성벽은 경사를 지니고 있다. 조선은 일본 성곽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관심은 이윽고 경사가 있는 성벽 구축 기술로 수렴되어 갔다.

‘조선의 역’ 종결 후 일본군의 재침공과 북방에서 세력을 확대하여 온 여진족에 대비하여 국방 체제의 재편을 추진한 조선에서는 왜성을 국방에 활용하지는 의견이 나타났다.<sup>39)</sup> 이 문제에 강한 관심을 보인 것은 ‘조선의 역’ 당시의 국왕 선조 자신이었다. 선조는 전장에서 보고를 듣고 일본의 성곽이 조선의 성곽과는 꽤 다른 구조로 우수한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으며,<sup>40)</sup> 도성인 한성의 성곽에 대해서도 실제로 시찰하여 보고 생각지도 않게 실소를 터뜨리고 말 정도로 불충분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었다.<sup>41)</sup> 왜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은 전쟁 당시부터 이미 나와 있었는데, 비변사와 저

39) 太田秀春, 2008 <朝鮮後期の國防体制再編における日本城郭－朝鮮の役後の倭城再利用の實相と城郭觀－> 《朝鮮學報》 208

40) 《宣祖實錄》 卷109, 32年 2月 壬子(2日)條. “上曰, 賊城與我國城制, 絶遠矣. 我國西方城寨, 極爲無狀, 我國人可謂無算. 以倭比我國人, 則霄壤不侔矣”

41) 《宣祖實錄》 卷92, 30年 9月 庚子(12日)條. “上曰, 一時山城之議起, 而皆曰, 山城好, 莫有是非. 不擇形勢, 處處修築, 故一山城敗, 而人心驚駭, 曰, 山城亦不可守, 以此益致潰裂. 我國之事, 等兒戲耳, 誠可痛心. 京城萬口一談, 皆曰可守, 而頃日巡城時, 始見制度等事, 不覺失笑. 如彼處置, 做得何事. 城堞, 聽葉鱗指授而爲之, 非徒不能射, 亦不能窺賊, 是所謂西施顰, 而從之顰也. 徒爲論議, 何益

명한 의병장인 곽재우, 도체찰사 등의 요직을 역임한 이덕형 등이 왜성을 활용한 국방 체제의 정비를 주장하였다.<sup>42)</sup> 이러한 국왕 선조와 전투 경험자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왜성의 재이용과 일본식 축성 기술의 도입이 실시되기에 이른 것이다.

우선, 침공한 일본측의 일대 거점이었던 부산의 子城臺倭城이 부산진성으로 재이용되었다(그림 7). 종래 부산진성은 ‘조선의 역’의 서전으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에 의해 함락되었는데 그것을 왜성으로 이설하는 형태가 되었다. 일본의 재침공이 있는 경우 가장 앞에서 공격 대상이 될 부산에서 왜성이 재이용되는 형태로 국방 체제가 펼쳐진 것은 조선 측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엿보게 해 주는 것이다. 또 가토 기요마사가 쌓은 대규모 왜성인 西生浦의 경우도 인접해 있던 서생포진성이 왜성으로 이설되었다. 이들 왜성 이외에도 울산, 사천, 남해의 각 왜성에는 수군의 거점인 船所가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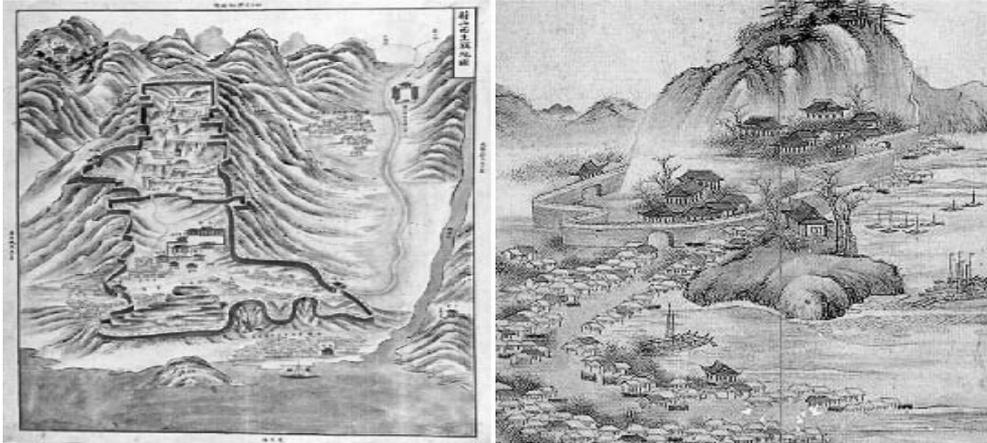
왜성을 국방 체제로 편입하는 한편 일본의 축성 기술도 도입되었다. 조선의 성곽 축성법(城制)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한대로 국왕 선조 자신이 불비함을 지적하고 있고, 또 명나라 원군을 이끌고 온 總兵 楊元도 한성의 성곽을 시찰하고 면적은 넓은데 성벽은 낮아 지키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견해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군이 침공할 때마다 명군을 파견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한성과 평양 등 주요 도시의 방어에 무언가 방책을 강구하여 수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43)</sup>

於事”

42) 《宣祖實錄》 卷74, 29年 4月 乙巳(9日)條. “備邊司啓曰, … 蓋巨濟, 正當海門, 若舟師入據其地, 因前日已成倭壘(倭城), 而莊船於海口, 可以觀勢乘便, 要截於絕影島釜山洋中, 庶可有望萬一, 只恐舟師寡弱, 不能收效耳”

《宣祖實錄》 卷120, 32年 12月 戊子(13日)條. “慶尙左兵使郭再祐馳啓曰, 臣去(1599年)十月十九日, 到任本營(蔚山), … 本營以最先受兵之地, 軍少至此, 防禦之事, 極爲可慮. … 臣之愚意以爲, 禦賊莫如守城. 邊城不守, 則賊至必潰, 軍潰將走, 將何以禦之乎. … 而壬辰年前, 大築邊城, 竟不能守, 變亂以後, 又築山城, 且不得守, 晉州見陷, 黃石亦敗. 自是以後, 軍民皆以城爲死地, 論者亦以城爲不可守. 謂城難守則可, 謂城不可守, 不亦誤乎. 臣本庸愚, 猥蒙重寄, 有報天恩, 萬死無恨, 安敢懷必生之計, 以守城爲危乎. 臣觀島山城(蔚山倭城), 清賊(加藤清正)役累萬之衆, 築必守之城, 城之堅固, 固無比也, 且因斷山, 築城極巧, 眞平地之一山城也. 外城周回, 只六百餘把, 精兵二千, 亦足可守, 而內地之卒, 不習戰鬪, 道路且遠, 邊警若急, 聚合誠難, 臨變急遽之際, 驅無糧之卒, 入守空城, 其勢必敗. 慶, 蔚之軍, 八年討賊, 慣於力戰, 精兵不爲不多矣. 若勿論公私賤, 本土流民, 盡數括出, 則慶, 蔚兩府, 可得守城軍二千餘名. 以此軍, 永屬於守城, 且於內地各邑, 括出諸色雜軍六千餘名, 爲守城軍, 奉足一人, 一年各出米二十餘斗, 則可以支二千名一年所食”

《宣祖實錄》 卷133, 34年 1月 丙辰(17日)條. “左兵營島山(蔚山倭城), 有清正入處之營, 故兵使李英去時, 臣諭以可守之意, 則英曰, 見形勢然後, 當爲之云, 而右兵營, 則馬山賊壘(馬山倭城), 亦有之矣. 上曰, 馬山可以築城乎. 德馨曰, 小臣不見馬山, 不知形勢矣. 若可據險, 則右兵使可以入處. 釜山亦有賊營(倭城), 鍊兵數千, 堅守倭城, 則可以據險”



〈그림 7〉 왜성을 재 이용한 西生浦鎭城(왼쪽)과 釜山鎭城(오른쪽)

서생포진성은 광대한 서생포왜성의 산허리부터 산기슭 부분까지 재이용되었으며 부산진성은 자성대왜성이 축성되어 있던 구릉을 중심으로 주위로 성역을 확장하여 진성이 구축되었다.

(왼쪽: 《조선후기지방지도》 규장각, 오른쪽 : 《朝鮮通信使》 東京國立博物館)

이러한 과정에서 착목한 것이 일본의 城制이다. ‘조선의 역’의 기간 중에 일본군이 축성한 왜성을 통하여 일본의 성제를 눈으로 본 조선 측에서는 왜성의 일부를 재이용하면서 한편으로 일본 성곽의 성제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일어났다. 대표적인 것이 북방의 성곽에 대한 일본의 성제 도입이다.<sup>44)</sup>

‘조선의 역’ 기간 중에 세력을 확대한 누르하치는 여진의 통일을 꾀하면서 조선에도 압력을 가하여 왔다. 선조는 누르하치는 보통의 여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대하며 평야에서의 전투에서는 승산이 없으므로 ‘堅城大鎭’ 즉 견고하고 규모가 큰 성곽에서 농성하며 방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sup>45)</sup>

그리고 선조는 ‘堅城大鎭’에 의한 방어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의 축성 기술의 도입

43) 《宣祖實錄》 卷35, 26年 2月 癸巳(8日)條. “俺見王京, 城大而低, 守之甚難. 今雖盡殲倭賊, 安保其更不來犯乎. 貴國文才忠義則有裕, 而無勇猛者. 賊若來犯釜山, 則是乃門庭之寇, 而不可每請天兵. 王京開城·平壤等處, 作何方略以守耶”

44) 북방의 성곽에 일본 성곽의 성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中西豪, 1987 <朝鮮側史料に見る倭城 - その觀察と理解の實相 - > 《朝鮮學報》 125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나카니시(中西)씨는 최종적으로는 도입되지 않았다고 결론 맺고 있다.

45) 《宣祖實錄》 卷68, 28年 10月 丙午(7日)條. “此非尋常之虜, 帶甲十萬, 決難支吾. 關西士卒有幾, 豈不寒心. 彼虜善射慣戰, 長於馳擊; 我兵單弱怯懦, 爭鋒於原野. 其勢必敗, 而平地之城, 亦恐難守, 須令擇山城入據之. 小小鎭堡土兵, 不過十餘, 有無不關, 而適足爲虜人所資, 皆令疊入於堅城大鎭, 清野以待, 必據險邀截”

을 기도하여 북방의 거점을 왜성을 참조하여 개수하도록 명하였다.<sup>46)</sup> 이에 따라 兵曹에서는 개수에는, 姜沆, 孫文彥, 丁夢鰈 등이 일본에 체재한 경험이 있어 일본의 성곽을 잘 알고 있으므로 北兵使軍官의 칭호를 주어 북방에 파견하여 지도하게 하고, 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邊將으로서 주류시킬 것을 제안하여 선조의 허가를 얻었다.<sup>47)</sup>

그 후 이들 계획은 실행에 옮겨져 함경도의 경성(함경북도 경성군)이 1615년에 일본의 축성 기술을 도입하여 개수가 이루어졌다<sup>48)</sup>(그림 8). 경성의 경우 기본적인 구조는 당시 명에서 막 입수에 성공한 최신의 병서인 《紀效新書》<sup>49)</sup>에 따르는 형태로 개축되었는데, 성벽은 일본식의 경사가 있는 구조로 개수되었다. 이 시기는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여(1616년) ‘七大恨’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명을 공략하기 시작한 시기와 겹친다. 이러한 북방의 군사적 긴장 상태 중에, 경성이 일본식의 축성 기술을 도입하여 개수된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서울과 남부 지방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인 竹州山城(경기도 안성시)을 꼽을 수 있다. 1604년 죽주산성의 개축이 의제로 떠오르자 선조는 종래의 조선의 성은 ‘失制’라고 비판하고 ‘倭制’를 쫓아 개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죽주산성은 기본적인 성곽의 선은 종래의 조선의 산성을 답습하고 있지만 성벽 자체에는 일본의 축성 기술이 도입되어 개수가 실시되었다.<sup>50)</sup>

46) 《宣祖實錄》 卷127, 33年 7月 戊午(17日)條. “備邊司啓曰, (중략) 經變以後, 軍政廢弛, 依上教, 別遣詳知倭城形制者, 馳赴巡察使營下, 道內城子, 雖不能一時改築, 其中尤甚防緊, 而頽壞不修者, 爲先修築, 參以倭城形勢, 刻期畢功待變”

47) 《宣祖實錄》 卷127, 33年 7月 乙丑(24日)條. “兵曹啓曰, 北道城制, 一依倭城改築事, 承傳矣. 被擄人等, 前後出來者, 不爲不多, 而其中前佐郎姜沆, 部將孫文彥, 務安居武出身丁夢鰈, 久在倭中, 亦必詳知日本城池機械矣. 此人, 北兵使軍官稱號下送, 出入諸鎮教誨後, 如有成效, 仍差本道邊將, 以酬其勞何如. 傳曰, 允”

48) 《北路紀略》 卷一, 關防, 城池條(아세아문화사 영인본). “按鏡城城築之壯固最稱於北路, 李澤堂植築城記曰, 鏡城北按山戎南受漕轉據一路之脊, 當六鎮之衝, 萬曆乙卯, 金節度景瑞, 除古城而新之, 丙辰夏始役, 親勒軍發北山石, 大者挽用四五百人, 小者用百數十人, 城高五丈, 大石參半, 規模倣戚氏書, 而略採蠻制, 若腰鼓者, 又他道之未有也, 及金節度限滿, 而去李兵使守一來畢其役”

경성에서의 일본의 성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1980년대에 차용걸씨가 간단히 지적하고 있다(車勇杰, 1980 <兩江地帶의 關防體制 研究試論 - 18세기 以後의 鎭堡와 江灘把守의 配置를 中心으로 -> 《軍史》 창간호). 또 돌담 건축 기술의 면에서는,李建河씨가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다(李建河, 1994 《韓日石垣의 構築設計體系에 關する研究 - 韓日技術書における比較設計論 -》 東京工業大學博士論文). 그런데 근래에는 노영구씨가 이러한 돌담은 조선의 기존 형식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盧永九, 1999 <조선 후기 城制 변화와 華城의 城郭史的 의미> 《震檀學報》 88. 나중에 나의 번역으로 2003 《城館史料學》 創刊號에 수록).

49) 盧永九, 1997 <宣祖代 紀效新書의 보급과 陣法 논의> 《軍史》 34



〈그림 8〉 일본식 축성 기술로 개수된 경성과 죽주산성의 성벽

이들 성곽의 선은 기본적으로 종래의 계획을 답습하고 있지만 성벽의 구축 기술은 ‘倭制’ 즉 일본식 축성 기술이 채용되어 경사가 있는 성벽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축성 기술은 그 후 조선 성곽에 전면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북방의 요충 등에서 채용된 의의에 대해서는 유의하여도 좋을 것이다.(왼쪽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3 이조편1)

전쟁 당시 조선 측에서는 일본의 성곽을 상세히 관찰하여 그 기능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관심은 돌담(石垣)의 구축 기술로 수렴되어 갔고 일본식 축성 기술로서 도입된 것은 돌담의 구축 기술이었다. 돌담의 구축에는 숙련된 전문 기술자 집단이 불가결한데 그 집단의 형성에 대해서는 왜성의 축성에 가담한 조선인의 존재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군의 거점 주변에는 많은 조선인이還住해 있었고 이들은 일본군의 거점인 왜성의 축성에도 가담하고 있었다.<sup>51)</sup> 왜성의 축성

50) 《宣祖實錄》 卷182, 37年 12月 丙寅(21日)條. “備邊司啓, 竹山山城(竹州山城), 今將修築. (중략) 傳曰, 允. 我國城子, 失制, 山城則雖因山勢築之, 然其制度, 略倣倭制, 須存深慮, 爲之可也. 此意竝諭. 且遣相地官, 與李光岳, 本官守令, 眼同相其形勢城門可當處, 及他幸有相地之事, 遣之可也.”

《宣祖實錄》 卷186, 38年 4月 丁卯(23日)條. “備邊司堂上李時言啓曰, 臣前往竹州山城, 與防禦使李光岳, 設砦便否, 眼同看審, 則城子周回之中, 自東至西, 山脊陟起, 狀如伏龍, 城之南北, 則皆是溝壑, 彼此不得相望, 如或受敵, 變生倉卒, 亦不得以時相救. 故府使李惟弘, 欲設砦於山脊, 爲主將駐節指揮應變之所, 而若城之左右不利, 則預作壘, 輒入收保之計, 此乃陣法內圓陣之義也. 宜從本州所報, 創爲新制, 允爲便益. 城役則依倣倭制, 城身已畢, 只餘北門基址三十餘把, 時方設築, 東南兩門, 欲爲蓋瓦. 城堞則據險處不築, 受敵最緊處, 欲爲幡輓營築, 故未及始役, 而開月念間, 似畢云矣”

51) 《宣祖實錄》 卷93, 30年 10月 己卯(22日)條. “經理接伴使李德馨, 啓曰, (중략) 其免死帖, 則書行長營下, 仰役勿殺云云, 而填其名, 如腰牌形. 我國人通書, 則似是谷城, 順天隣境居民等所爲, 而未

을 경험함으로써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 V. 마치며

이상, ‘조선의 역’에 대하여 교과서의 기술과 제 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에서 밝혀진 과제를 중심으로 본인의 연구와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우선 이른바 ‘被虜人’을 비롯한 ‘투항 조선인’, ‘귀순 조선인’ 즉, 이 글에서는 ‘附倭’로 정의한 사람들의 인적 이동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부왜’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군이 조선에서 실시한 遷住 정책을 전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본군은 히데요시의 의도에 따라 명으로의 침공을 위한 거점으로서 조선을 다스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이 적대할 경우에는 공격을 가하였지만 遷住하여 온 경우에는 보호하여 통치하였다.

일본군의 遷住 정책을 바탕으로 전쟁이라는 상황 아래에서 살아 나가기 위한 선택으로서 遷住한 주민들, 즉 ‘부왜’에 대한 조선 조정의 분노는 상당한 것이어서 당초에는 遷住한 주민들이 조선에 복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선 측의 대응은 일본군의 遷住에 응한 주민들의 이후의 행동에도 강한 영향과 제약을 주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이들 주민이 돌아오도록 호소하기 위해 명군의 주도로 복귀한 주민의 목숨을 보장하는 증명서인 ‘免死帖’을 발급하여 주민의 불안과 불신감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군과 명·조선군 사이에 참으로 주민 쟁탈과 같은 상황이 출현하였던 것이다.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인적 이동, 이른바 ‘근세 초기 도래 조선인’<sup>52)</sup> 중에는 당연히 ‘被虜人’과 같이 강제를 동반한 이들도 존재하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일본으로의 인적 이동이 ‘被虜人’과 같은 형태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이다. 오히려 ‘被虜人’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일본으로의 이동이 존재하

---

端書餘生人等白活，沒有書姓名”

이 조선인들이 ‘免死帖’을 지니고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휘하에서 노역하던 시기, 고니시군은 거점인 순천왜성을 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인이 관여한 작업은 이 축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2) ‘근세 초기 도래 조선인’이란, ‘조선의 역’에 의한 조선인의 일본으로의 인적 이동을 아우르는 호칭으로 종래는 ‘被虜人’으로 일괄 취급하여 온 인적 이동에 대하여 새로운 틀을 설정하는 것이다. 鶴園裕 外編, 1991 《日本近世初期における渡來朝鮮人の研究－加賀藩を中心に－》(科學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

였다고 상정하는 편이 자연스럽다.<sup>53)</sup> ‘항왜’의 경우도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인적 이동도 일방적·일면적인 것이 아니라 극히 복잡하고 다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史實이야말로 이 전쟁의 실태를 여실히 이야기하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상대적·다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 전쟁의 의의와 실태를 생각할 때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이 전쟁의 본질에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또 왜성과 전쟁에 따른 조선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군사 기술의 전파에서 분석하였다. 전쟁 중에 일본에서 조선으로 조총이 전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축성 기술도 도입되었다. 조총이 그 후 조선의 군사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 데 비해 축성 기술의 경우는 국지적으로 도입되는 데 그쳐 조총과 같은 전개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선에 이러한 군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객관적 판단과 인적 자원(기술자 집단)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이제부터 주목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축성 기술이 국지적이긴 하지만 군사적으로 극히 중요한 지점에 도입되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교과서의 기술에 보이는 것처럼 일본군의 서전의 승리는 조총의 위력 덕택이 컸는데, 조선에서는 ‘降倭’ 중에 조총 제조 기술을 가진 자들을 편성하여 조총의 제조·생산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조총의 양산에 성공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으로의 도자기 기술 이입에는 조선의 도공이 존재하였다. 기술의 이전과 도입은 인적 자원의 존재가 동반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어서 이러한 인적 흐름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축성 기술과 같은 고도의 토목 기술은 당연히 전문 기술자 집단의 존재 없이는 기술 이전이 있을 수 없으며 이들 집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계속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술 이전을 위한 인적 자원의 형성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가 앞서 서술한 일본군과 주민, 즉 ‘부왜’와의 관계일 것이다.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이 ‘조선의 역’은 한일 양쪽 모두에 관계사와 교류사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역사 사항의 하나이며 교과서에는 기술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다루어지는 항목이다. 그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구의 심화가 필요하며 교과서의 기술을 생각할 때에도 ‘조선의 역’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한일 양쪽의 관계를 생각할 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항상 계속하여 물어 나갈 필요가 있다.

53) 실제로 일본군에 붙은 조선인이 일본으로 건너 온 사례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시마즈씨(島津氏)를 안내한 조선인이 가고시마(鹿兒島)에 와 있었는데, 이들은 ‘被虜人’과는 명확히 구분하여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深港恭子, 2000 <薩摩燒をめぐる苗代川文書について> 《黎明館調査研究報告》13

[비평문]

현명철

발표의 의의

발표자는 임진왜란에 대한 교과서의 기술을 검토하고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분과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 중 4가지 문제 즉 왜성, 부로인의 실태, 병량공급시스템, 전쟁에 의한 조선사회의 변화를 주목하여 주로 환주정책과 왜성에 대해 필자의 논지를 전개하였다.

필자의 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임진왜란의 명칭은 한중일 세 나라가 각각 다른 명칭으로 쓰고 있는데 일본, 조선, 중국이 한반도를 무대로 전개한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조선의 역’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3. 일본에서 조선으로는 降倭와 같이 자발적으로 이동하였으나,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이동은 피로인과 같이 강제적으로 이동되었다고 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기 위해 還住 정책을 분석하여 자발적인 이동을 강조하였다.
4. 일본군이 병량 확보에 고통을 겪었다는 기술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기 위해 왜성의 구축이후 현지에서의 환주정책의 성과가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일본에서 조선으로의 기술 전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발표자는 일본군의 현지 지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상당수의 조선인이 일본에 붙어 있었던 모습을 찾아내고자 노력하였고 임진왜란으로 조선이 얻은 성과(무기의 발달, 왜성 수축 기술 등)도 존재함을 부각하고자 노력하였다.

II. 비평

1. 임진왜란을 ‘조선의 역’이라고 표현하고자 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

필자의 전쟁관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내 반란이나 변경을 소란스럽게 한 행위를 진압한다는 의미로 ‘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침략 당사자의 전쟁관을 드러내는 용어를 지금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침략자의 견해에 동감한다는 것으로 느껴져 몹시 위화감을 느낀다. 한국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대화를 원점으로 되돌릴 우려가 있다.

2. 사람과 사물의 흐름이 일방적으로 기술된 혐의가 있어서 편향적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해

임진왜란의 성격이 무엇인지 통신사가 왕래하였던 이웃나라에 대한 침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배려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승패 사관에서 전투 그 자체만을 보고자 하는 좁은 시야에서의 바라보고자 하는 관이 있다. 많은 연구가 지적하듯이 임진왜란은 권력에 의한 대규모의 약탈 전쟁이었다. 도자기, 활자, 서적 등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빼앗아 갔다. 기술자도 끌고 갔다. 조선에서 사람과 물자가 일본으로 이동한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물론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병사와 물자가 조선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물자의 약탈을 보충하는 것은 아니다.

3. 환주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는 견해에 대해

전쟁은 폭력을 동반한다. 환주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전쟁의 폭력성, 위협, 공포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 인간이 비굴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왜곡하는 일이며 나아가 폭력적 전쟁을 미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어떤 전쟁이든지 대민 선무공작은 행해지는 것이다. 일본의 통일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전 세계의 전쟁에서 보이는 형태이다. 임진왜란에서 환주정책이 성공하였다면 두 나라 사이에 불구대천의 원수관계는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성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하였던 것임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 발표자가 이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환주정책의 성과라 표현하는 것은 전쟁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아울러 조선의 부왜에 대한 강경책이 환주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게 방어하는 의미가 있음을 발표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언급이 없고 오히려 부왜 강경책으로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만을 언급하고 있다.

4. 병량 확보는 충분하였다는 견해에 대해

전쟁에 병량 확보가 항상 충분하였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많은 사료를 무시하고 필요한 사료만을 모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가능하다. 아무리 유리한 전쟁이어도 병량의 문제는 따른다. 더구나 의병과 수군의 활약으로 일본군이 병량 부족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이며 많은 사료에서 확인된다.

#### 5. 일본에서 조선으로의 기술 전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

조총에 대해서나 축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있고 교과서에도 기술되어 있다. 새로운 견해가 아니다. 임진왜란을 통해 조선의 무기 기술은 급격히 발전하였다. 전통적으로 화약무기가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조선으로서는 전쟁을 통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전쟁 후기 거북선에 탑재한 대포의 위력이 일본 수군을 곤란에 빠뜨렸음은 좋은 예이다. 왜성의 구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나가며

太田의 발표는 전쟁하 점령지에서 나타난 복잡한 인간 행동과 사회 변화에 대해 일정 부분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면이 보이며 그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어떻게 기술하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임진왜란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가슴이 답답함을 느낀다.

임진왜란 이후 200여 년 동안 조선과 도쿠가와 막부 간에 평화관계를 유지한 것은 임진왜란에 대한 반성을 공유하였기 때문이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하고 한일간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수립하자고 노력하고 있다. 한일역사공동위의 과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구나 교과서 분과의 공동 책임은 어떠한 교과서의 기술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발표문은 물론 필자가 의도하는 바는 아니겠으나, 다시금 임진왜란에 대해 대결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도가 읽혀지는 것으로 상당히 당혹스럽다. 전쟁에 대한 비판을 공유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요원하다는 점을 발표자는 깊이 생각하기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 [집필자 답변]

우선, 비평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다.

먼저 이 논문의 전제가 되는 인식에 대해 말하고 싶다. 필자는 전쟁이라는 행위로 인해 일어난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동시대의 관련 자료를 보고 있는 만큼 이 점은 항상 의식하고 있으며 전쟁을 긍정하거나 찬미하려는 생각은 털끝만 큼도 없다. 이는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고 또 분량의 문제 등도 있어서 논문 중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말해 두고 싶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논문에도 이 점에 대해 보충하고 싶다. 아래는 모두 이러한 인식을 대전제로 한 코멘트이다.

전쟁의 명칭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말한 대로 일단은 ‘조선의 역’을 사용했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사용하여 온, 전쟁을 의미하는 ‘역’을 이용한 것은, 반란의 진압 등이 아니라 ‘역’이라는 한자가 지닌 기본적인 의미인 ‘전쟁’ 때문이다. 장래 한·중·일 3국에서 공통의 균일한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명칭이 형성되어 일반에게 받아들여질지 어떨지는 별개로 하고, 학술적인 교류의 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음은, 논문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명칭에 대한 좋은 예로서 왜성이 있다. 왜성은 히데요시(秀吉)軍이 한반도에 쌓은 일본식 성곽으로 본래 한국에서 사용되던 용어이다. 일본에서는 ‘왜’라는 문자의 이미지 때문에 왜성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의 한일 학술 교류가 왕성해져서 결국은 학술 용어로서 일본에서도 왜성의 명칭이 정착되어 일반화되었고, 현재에는 한일 공통의 용어가 되었다.

또 인적·물적 이동과 환주 정책에 따라 일본에 붙은 조선인(‘附倭’), 병량과 기술 전파의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이들은 교과서에 기술하는 역사적 사실의 전제로서 이러한 史實도 존재하였다는 것이며 전쟁이 지닌 다양한 측면을 밝혀 나갈 필요가 있다는 시점에서의 고찰이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일어난 史實에 대해 종래와 같은 연구가 아니라 새로운 다각적인 시점에서 그 모습을 밝혀 나가는 것이 연구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환주 정책에 따라 일정 수의 조선인이 ‘부왜’가 된 사례도, 논문에서 명기하고 있듯이 전쟁이라는 상황 하에서 주민들이 살아가기 위한 필사의 선택이며 환주한 주민들에게

상관을 잡으라는 등의 일본군의 요구는 참으로 교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지배가 지역 주민의 심리와 조선 사회에 남긴 상흔의 크기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결국, 환주의 과정과 결과를 밝히는 것은 전쟁에 농락당한 주민의 비참한 모습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반복되지만, 필자는 전쟁을 긍정하거나 찬미하거나 할 생각이 없으며 더욱이 일본군의 ‘성과’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다. 교과서 기술의 전제가 되는 연구가 중요하다. 교과서에 드러나는 전쟁이 지닌 다양한 측면을 밝히고 그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파악하면 좋은 가라는 문제를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이 진지하게 검토해 가기를 바란다. 그 결과가 결국 교과서에 반영되어 한일의 역사 인식의 차이가 문제 없는 수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